

## 철학 토론문

「인공지능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대해야 할 것인가?  
강선아 교수의 논문 “메타버스 시대,  
인공지능 예술작품의 지위와 감상의 문제”에 관하여」

피아오광하이(朴光海) / 중국사회과학원

서울대학교 강선아교수의 논문 “메타버스 시대, 인공지능 예술작품의 지위와 감상의 문제”는 인공지능과 창의성, 예술과 창의성, 인공지능과 예술의 관계 및 새로운 예술의 정의 등을 통해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의 인공지능이 산출한 혹은 ‘창작’한 예술작품의 지위 및 인간 감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 예술작품의 감상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평가하며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과 시야도 제시해주었습니다. 특히 강선아교수의 논문 중 예술 및 창의성에 관한 내용, 이들의 발전과 변화과정에 대한 소개는 인공지능과 예술 및 창의성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영양괘각, 무적가심(羚羊掛角, 無迹可尋)”, 영양이 밤에 잘 때 나뭇가지에 뿔을 걸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과거에는 미술, 음악, 문학 등이 창작하는 주체(인간)의 감정, 의식, 스타일, 미학, 창의성 등 감성적 사고력과 영감적 깨달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술 영역으로 간주되어왔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인공지능은 예술 영역까지 ‘침투’하고 ‘공략’해버려 인공지능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만들고 ‘창작’한 예술작품이 예술성이나 미학적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는 인간이 작성한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창작’이기에 본질적으로 인간의 ‘지도’를 받은 셈으로 진정한 의미의 ‘창작주체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산출한 예술작품은 인간 감상자에게 미적 체험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의 눈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작품의 지위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 더욱 포용적이고 오픈된 마인드로 대해야 하고 굳이 엄격한 이념이나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의해 기존의 예술경계가 붕괴될 수도 있으나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 또한 다원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응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공지능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예술 창작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의 협업과 도움에 힘입어 인간 예술가들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고 나아가 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강선아 교수가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산물은 인간 및 인간의 산물과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네트워크 미학의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편협한 시각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것보다 인공지능을 예술창작의 도구 및 기술적 수단으로 여기고 포용적인 자세로 인공지능의 발전을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선아 교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 “AICAN이 제작한 작품들을 시각적 튜링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75%의 관람자가 이 작품들을 사람이 제작한 작품으로 판단한 반면, 실제 추상표현주의 작가의 작품들은 85%가 사람이 그린 작품으로 생각했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 대중은 어떻게 인간이 창작한 예술작품과 인공지능이 생성한 예술작품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